

CURE

CUrrent REsearch in mental health

VOL. **1**
March 2020

Expert's View [논평] 03

- 주산기 여성 우울증 관리 강화의 필요성과 우리의 과제 04

Current Research Trends [연구 동향] 07

조현병 및 기분장애 08

- 조현병 환자의 편집적 사고와 중립적 자극에 대한 변연계 이상
- 메가분석 및 메타분석으로 알아본 양극성장애 환자의 회백질 이상
- 알코올사용장애를 동반한 기분장애 우울환자의 임상적 특성
- 부모의 육아 방식과 자녀의 우울장애 위험
-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을 통해 알아본 임신기간 및 산후기 간 리튬 복용의 위험

발달장애 12

- 자폐스펙트럼장애를 가진 아동에서 아버지의 영향
- 피질 두께 감소 가속화와 과민성의 관련성
- 코호트 자료를 사용하여 알아본 ADHD 아동의 약물치료 예측 요인
- 아동학대 및 방임과 정신질환의 관계
- 아동학대 경험이 선호하는 대인간격과 사회적 접촉 처리 과정에 미치는 영향
- 아동의 정신질환 유병률과 약물처방 패턴의 추세

자살 16

- 벤조디아제핀, 항우울제, 아편 진통제와 졸피뎀의 병용과 자살위험
- 종단 연구들의 메타분석을 통해 본 세계의 자살위험

정책 및 제도 18

- 퇴원 후 재입원을 줄이기 위한 퇴원전환개입의 효과성
- 아시아계 미국인의 정신건강치료 이용과 필요성 인지 간의 간극
- 중국 중증정신질환자의 자의 및 비자의 입원현황

기타 21

- 청소년기의 경계성 성격장애와 이성교제
- 심리적 스트레스와 비만, 이민과의 관련성

NCMH's Research [연구 성과] 25

- Effect of comorbid depression o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f patients with chronic diseases: A South Korean nationwide study
- Psychological responses among humidifier disinfectant disaster victims and their families
- Relationship between ways of coping and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in firefighters compared to the general population in South Korea
- Long-term effects of Aripiprazole treatment during adolescence on cognitive function and Dopamine D2 receptor expression in neurodevelopmentally normal rats

CURE

March 2020 | vol.1

발행일 2020년 3월

발행호 2020년 1호

발행인 이영문

발행처 국립정신건강센터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127

전화 02) 2204-0375

홈페이지 www.ncmh.go.kr

디자인 및 제작 평강토탈프린팅

「CURE-논평」에 수록된 원고는
집필자의 견해이며 국립정신건강
센터의 공식적인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CURRENT RESEARCH IN MENTAL HEALTH

Expert's View [논평]

주산기 여성 우울증 관리 강화의 필요성과 우리의 과제

주산기 여성에서는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발병할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공공보건관점에서 그 질병 부담은 상당히 높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1년 이내 여성의 11.5%에서 주요우울증이나 경도우울증이 발생하고, 이는 산모의 조산뿐만 아니라 신생아의 저체중, 기질이나 행동상의 문제를 야기시킨다.¹⁾ 국내 정신질환실태 역학 조사에서도 여성 우울증 환자의 17.3%는 주산기에 우울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 우울증을 앓고 있는 어머니로부터 자란 신생아들은 애착 관계 형성, 모유수유,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성장기가 되어서도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³⁾ 우울증을 포함한 주산기 정신질환은 주산기 여성 사망 원인의 20%를 차지하는 자살과 대부분 관련이 있고, 영아 살인에서도 주요한 원인을 차지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산기 정신질환 관리를 강화하여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홍진표 교수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최근 미국 예방서비스 태스크포스(US Preventive Service Task Force; USPSTF)에서는 “의사들은 임신부나 주산기 여성 중 우울증의 위험이 높은 사람에게 정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뢰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이는 비용 대비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한다.⁴⁾ 이 권고는 주산기 여성에서 우울증이 발병했을 때 개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울증의 위험요소가 있는 주산기 여성에서 우울증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인 개입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기존 관행에 비추어 큰 변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산기 우울증의 발병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한 모델 개발이 시급하다. Osborne등(2016)⁵⁾이 임신 호르몬에 대한 유전자 발현과 후성유전자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산후 우울증 발병을 예측하는 방법을 제안한 것 같이, 유전적, 내분비학적, 생화학적, 면역학적, 뇌영상학적 특성 같은 생물학적 바이오마커를 통하여 출산 전후의 우울증 발병을 정확히 예측하여 고위험 산모를 타겟으로 개별화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주산기 우울증 예방의 이상적인 목표가 될 것이다.

하지만 실제 임상 현장에서 우울증 발병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기존에는 주산기 우울증을 선별하기 위해서 여성들에게 간단한 자기 보고식 주산기

우울증 선별 도구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우울증 발병 전에 고위험군을 선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USPSTF에서는 자세한 병력청취를 통하여 우울증 과거력이나 가족력, 아임상 우울증상에 대한 평가, 임신 합병증, 어린 시절의 신체적/성적 학대경험 및 사회인구학적 특성(소득수준, 원하지 않은 임신, 미혼모 여부 등) 등의 주산기 우울증 위험 인자를 평가하여 위험 요인이 한 가지 이상인 경우 그 정도에 따라서 정신심리상담을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

산모는 임신 검진을 위해서 의료기관을 여러 번 방문하게 되고 임신 상담 중에 자기 관리나 생활습관 상담이 진행되므로, 주산기 우울증 고위험군의 선별은 현재 산모가 치료 받는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그러나 일차 의료기관이나 산부인과에서는 전문적인 정신건강의학과적 검진이 어렵고, 짧은 진료시간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우울증 평가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산모를 진찰하는 의사들이 고위험 산모를 정신건강서비스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인력지원과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주산기 우울증의 고위험군이라고 생각되는 산모에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정신 의료 서비스 현실을 고려할 때 창의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USPSTF에서 우울증 발병을 예방할 수 있는 치료법의 효과성에 대한 50개의 임상연구를 리뷰한 결과, 상담과 정신치료가 주산기 우울증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며 이 중에서 인지행동치료와 대인관계치료를 가장 근거가 잘 확립된 치료로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단일 의료기관의 치료진들이 이런 정신치료기법을 비교적 많은 대상자에게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에서는 전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기반의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안을 개발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원격진료 관련 이슈들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임을 고려한다면 현 상태에서 미국의 경우와 같은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8년부터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에서 임신부 우울증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개별 심리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성과를 평가해보고 이를 일선의 의료기관에 확산시키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상급종합병원에서 ‘암환자를 위한 디스트레스상담’, ‘당뇨병 환자의 교육 및 상담’ 등 특정 환자군에 대한 교육상담 프로그램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이에 대한 수가를 현실화하고 있는 점 등을 참고하여 산모를 대상으로 정신심리적인 지원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력 및 재정적 기전 역시 마련하여야 한다. 이때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은 다른 교육프로그램보다 난이도나 전문성이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다양한 주산기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 중에서 전 계층에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가 무엇인지, 그 구성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회기 횟수는 몇 번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동시에 현대 의료 서비스는 매우 빠르게 개별화되어 제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산기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 역시 개인의 위험 요인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로 진화해 나아가야 한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산기 우울증 평가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사람 중에는 임신 전에 중요한 정신질환 - 조현병, 양극성 장애, 알코올중독, 불안장애 등을 앓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많은 환자들이 임신을 전후하여 약물치료를 중단하면서 임신 중이나 출산 이후에 정신질환이 재발하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해 심한 경우 주산기 자살, 영아 사망 등의 응급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간혹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임신 중 약물치료를 지속하다가 선천성 기형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것을 염려하여 투약 여부를 임신부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심지어 정신질환이 재발이 될 경우 매우 치명적인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에서도 투약이 중단되는 경우가 흔하다는 점에서 임신 중 정신질환의 약물치료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처럼 주산기 여성에서 우울증 고위험군을 선별하여 정신심리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우울증이 발병하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주산기 여성에게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의 정신건강을 지켜준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기여도 역시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주산기 여성 우울증을 예방하고 치료한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매우 부족한 실정임을 고려한다면 우리 모두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지원 및 투자를 해야 한다.

참고문헌

- 1) Ko JY, Rockhill KM, Tong VT, Morrow B, Farr SL. Trends in postpartum depressive symptoms—27 states, 2004, 2008, and 2012. MMWR Morb Mortal Wkly Rep. 2017;66(6):153-158.
- 2) 흥진표 등. 2016년도 정신질환실태조사 보고서. 보건복지부. p246
- 3) Pearlstein T, Howard M, Salisbury A, Zlotnick C. Postpartum depression. Am J Obstet Gynecol. 2009;200(4):357-364.
- 4) 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 Interventions to prevent perinatal depression: 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 recommendation statement. JAMA, 2019;321(6):580-587
- 5) Osborne L, Clive M, Kimmel M, et al. Replication of epigenetic postpartum depression biomarkers and variation with hormone levels. Neuropsychopharmacology. 2016;41(6):1648-1658.

Current Research Trends

[연구 동향]

「CURE-연구 동향」에 수록된 원고는 외부로 게재, 인용, 및 재사용을 금지합니다. 각 논문의 자세한 내용은 원 논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현병 및 기분장애



조현병 환자의 편집적 사고와 중립적 자극에 대한 변연계 이상

출처 : Dugré, J. R., Bitar, N., Dumais, A., & Potvin, S. (2019). Limbic Hyperactivity in Response to Emotionally Neutral Stimuli in Schizophrenia: A Neuroimaging Meta-Analysis of the Hypervigilant Mind.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76 (12), 1021-1029.

링크 : <https://doi.org/10.1176/appi.ajp.2019.19030247>

조현병 환자 중 일부는 편집적 사고(paranoid ideation)¹⁾를 보인다. 과거에는 이를 위협적인 자극에 대한 변연계(limbic region)²⁾의 비정상적인 반응 때문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연구 결과들은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해주지 않았다. 이에 최근에는 위협적이거나 부정적인 자극이 아닌, 중립적인 자극에 대한 조현병 환자의 변연계 반응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Dugré 등(2019)은 중립적인 자극에 대한 조현병 환자의 변연계 반응을 살펴본 연구들에 대한 메타분석을 진행하였다. PubMed, Google Scholar 및 Embase에서 검색한 관련 연구 중 최종 23개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연구 결과, 건강한 일반인에 비해 조현병 환자가 중립적인 자극에 변연계(예: 좌·우측 편도체, 부해마, 좌측 피곡(putamen) 등)가 더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Dugré 등(2019)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정신증 위험이 높은 사람들의 변연계 활성화를 검사하여 변연계의 이상반응이 정신증을 조기에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앞으로 이러한 연구를 통해 정신증 환자를 조기에 선별하고 개입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 조현병의 증상 중 하나이며, 누군가에게 감시나 미행을 당하고 있고, 타인들이 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피해 받고 있다고 끊임없이 의심하는 것을 말한다.

2) 정서와 관련이 있는 뇌 영역

메가분석 및 메타분석으로 알아본 양극성장애 환자의 회백질 이상

출처 : Favre, P., Pauling, M., Stout, J., Hozer, F., Sarrazin, S., Abé, C., ... for the, E. B. D. W. G. (2019). Widespread white matter microstructural abnormalities in bipolar disorder: evidence from mega- and meta-analyses across 3033 individuals. *Neuropsychopharmacology*, 44(13), 2285-2293.

링크 : <https://www.nature.com/articles/s41386-019-0485-6>

최근 정신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생체지표(biomarker)를 알아내기 위한 연구들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양극성장애는 전두변연계 회백질(fronto-limbic white matter) 이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환산텐서영상(Diffusion Tensor Imaging, DTI)연구 결과들은 일관되지 않았다. Favre 등(2019)은 양극성장애 환자의 회백질이 건강한 대조군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환산텐서영상을 이용한 연구들에 대한 메가분석(mega-analysis)과 메타분석(meta-analysis)을 실시하였다. 총 12개국의 26개 코호트(N = 3033; 양극성장애 = 1,482, 대조군 = 1,551)가 모여져 있는 ENIGMA-BD DTI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총 43개의 관심 영역(Region of Interest, ROI)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었다. 메가분석 결과, 뇌의 29개 영역에서 양극성장애 환자의 평균 분획 이방성(fractional anisotropy, FA)이 대조군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 영역의 높은 FA는 리튬 사용, 늦은(later) 발병 및 짧은 질병 기간과 관련이 있었다. 메타분석의 결과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양극성장애 환자들에서 회백질 이상이 보였으며 특히, 뇌량(corpus callosum) 및 대상(cingulum) 내의 회백질 연결성(connectivity)의 이상이 양극성장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정신질환의 생체지표를 파악하여 정확한 진단과 빠른 개입이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알코올사용장애를 동반한 기분장애 우울환자의 임상적 특성

출처 : Hong, M., Ha, T. H., Lee, S., Oh, S., & Myung, W. (2019). Clinical Correlates of Alcohol Use Disorder in Depressed Patients with Unipolar and Bipolar Disorder. *Psychiatry Investigation*, 16(12), 926-932.

링크 : <https://doi.org/10.30773/pi.2019.0182>

기분장애 환자가 알코올 사용문제를 동반하게 되면 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기분장애 환자에게서 가장 많은 동반질환 중 하나는 알코올사용장애(Alcohol use disorder, AUD)이다. 기분장애의 대표질환인 양극성장애(Bipolar Disorder, BD)와 주요우울증(Major Depressive Disorder, MDD) 환자에서 AUD가 동반되면 재발, 폭력행동, 자살사고 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AUD와 관련된 기분증상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Hong 등(2019)은 기분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울환자의 임상적 특성(clinical phenotypes)과 동반질환인 AUD 사이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주요우울 삽화를 나타낸 총 137명의 연구참가자들에게 기분장애와 동반된 AUD와의 진단, 증상의 중증도 및 정서적기질 등의 임상평가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AUD가 동반되는 집단이 동반되지 않은 집단보다 조증 증상이 심했고, 자살사고 및 아동기 외상이 더 많았다. 정서적 기질 중에서는 과민성(irritable) 및 과잉(hyperthymic)기질이 컸고, 반면 불안기질 점수는 낮았다.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교란변수 보정 후, 불안기질은 독립적으로 AUD 위험을 감소시켰지만, 반대로 양극성장애 진단과 과민성 조증 증상은 AUD 위험을 증가시켰다. Hong 등(2019)은 이런 결과에 대하여, 기분장애를 가진 우울환자에게 AUD가 동반되는 것은 정신병리학적인 조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더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양극성장애의 임상적 진단 및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부모의 육아 방식과 자녀의 우울장애 위험

출처 : Griffith, J. M., Crawford, C. M., Oppenheimer, C. W., Young, J. F., & Hankin, B. L. (2019). Parenting and Youth Onset of Depression Across Three Years: Examining the Influence of Observed Parenting on Child and Adolescent Depressive Outcomes. *J Abnorm Child Psychol*, 47(12), 1969-1980.

링크 :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07%2Fs10802-019-00564-z>

부모의 양육 방식과 자녀의 우울증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를 중단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드물며 대부분의 연구들은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Griffith 등(2019)은 관찰한 부모의 양육 방식(지지(support), 반응(responsiveness), 비판(criticism), 갈등(conflict))이 자녀의 우울증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단 연구를 진행하였다. 지역사회 청소년 585명(8-16세, 평균 나이 = 11.92)과 그들의 보호자를 3년 동안 연구하였다. 교육을 충분히 받은 관찰자가 기저 시점에서 부모-자녀 사이의 문제 해결 논의 과정을 관찰하고 부모의 양육방식을 평가하였다. 6개월에 한번씩 KSADS(Schedule for Affective Disorders and Schizophrenia for School Aged Children)를 사용하여 자녀의 우울증 발생 여부를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기저 시점에서 부모의 갈등이 연구 참여 기간 동안 자녀의 우울증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정신장애를 겪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들의 개입에 부모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을 통해 알아본 임신기간 및 산후기간 리튬 복용의 위험

출처 : Fornaro, M., Maritan, E., Ferranti, R., Zaninotto, L., Miola, A., Anastasia, A., . . . Solmi, M. (2020). Lithium Exposure During Pregnancy and the Postpartum Period: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Safety and Efficacy Outcome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77(1), 76-92

링크 : <https://doi.org/10.1176/appi.ajp.2019.19030228>

리튬은 양극성장애 환자에게 처방되는 약물 중 하나이다. 그러나 아직 양극성장애 임신부에게 처방되는 리튬의 위험성은 명확하지 않다. Fornaro 등(2020)은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을 진행하여 임신기간 및 산후기의 리튬 사용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Pubmed 및 Scopus에서 2018년 10월까지 발표된 논문 중 질 평가(Newcastle-Ottawa Scale과 Cochrane risk of bias tools사용)를 거쳐 총 29개의 논문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그 중, 13개 논문이 질적 분석에 포함되었다. 연구 결과, 임신 기간 중 리튬을 복용하는 것은 기형아 출산(OR = 1.81, 95%CI = 1.35-2.41)과 심장 기형(OR = 1.86, 95%CI = 1.16-2.96) 위험을 높였다. 특히, 임신 초기 리튬에 노출되는 것은 자연 유산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OR = 3.77, 95%CI = 1.15-12.39). 리튬을 복용하지 않는 것보다 복용하는 것이 산후 재발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혈청 리튬 수준(serum lithium level)과 복용량이 신생아의 건강상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극성장애 환자가 임신을 할 경우에는 리튬 복용 용량을 줄이는 것에 대해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발달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를 가진 아동에서 아버지의 영향

출처 : Rankin, J. A., Paisley, C. A., Tomeny, T. S., & Eldred, S. W. (2019). Fathers of Youth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A Systematic Review of the Impact of Fathers' Involvement on Youth, Families, and Intervention.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22(4), 458-477.

링크 :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07/s10567-019-00294-0>

아동의 발달 과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제는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도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자녀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들이 많았다. Rankin 등(2019)은 자폐스펙트럼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 ASD)를 겪고 있는 자녀의 아버지가 자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혹은 자녀가 받는 개입/치료에 아버지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체계적 문헌고찰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ASD 아동과 부모 관련 연구 중 대부분은 아버지가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자녀의 양육에 더 많이 개입이 되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여러 결과들을 취합했을 때 아버지는 ASD를 가진 자녀의 양육 및 개입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ASD관련 연구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Rankin 등(2019)은 아버지의 참여를 강조한다. 또한 ASD관련 연구에 부모뿐 아니라,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을 참여시키고 연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질 두께 감소 가속화와 과민성의 관련성

출처 : Jirsaraie, R. J., Kaczurkin, A. N., Rush, S., Piiwia, K., Adebimpe, A., Bassett, D. S., . . . Satterthwaite, T. D. (2019). Accelerated cortical thinning within structural brain networks is associated with irritability in youth. *Neuropsychopharmacology*, 44(13), 2254-2262

링크 : <https://www.nature.com/articles/s41386-019-0508-3>

과민성(irritability)은 정신병리학에서 중요한 증상 중 하나이며, 다양한 정신장애에서 나타난다. 과민성과 관련된 뇌 영역에 대한 연구들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지만, 과민성을 보이는 환자들의 뇌 변화를 종단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Jirsaraie 등(2019)은 총 137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뇌 연결망(network)의 구조적 변화를 종단적으로 살펴보았다. 두 시점(평균 촬영 간 기간 = 5.2년)에 걸쳐, 3 Tesla MRI를 이용한 뇌 촬영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횡단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과민성은 더 얇은 피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단적 분석 결과, 약 9개의 연결망에서의 가속화된 피질 두께 감소(특히 전두엽 및 측두엽)가 과민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민성이 전두엽 및 측두엽 피질 두께의 가속화된 감소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발달 과정에서 정신장애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 개입이 이루어져 보다 빠르게 예방 및 치료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코호트 자료를 사용하여 알아본 ADHD 아동의 약물치료 예측 요인

출처 : Russell, A. E., Ford, T., & Russell, G. (2019). Barriers and predictors of medication use for childhood ADHD: findings from a UK population-representative cohort.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54(12), 1555-1564.

링크 :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07/s00127-019-01720-y>

Russell 등(2019)은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를 가지고 있는 아동 중 약물치료를 받는 아동의 비율, 약물치료 시작 시기, 및 약물치료를 예측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았다. 코호트 자료인 Millennium Cohort Study on child ADHD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총 11,708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아동이 약물치료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14세에 측정하였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약물치료를 예측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때, ADHD의 중증도(7세 때의 중증도)는 보정하였다. 연구 결과, 약 4%의 아동이 ADHD로 진단을 받았으며, 그 중 약 46%가 약물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 치료를 시작한 연령의 중앙값은 9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약물치료와 관련된 요인들은 남아와 품행문제(7세, 14세 때 모두)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약물치료를 덜 받는 것을 뜻하며, 이는 남아들이 품행문제를 더 많이 보이기 때문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사용한 자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국가별로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 및 방임과 정신질환의 관계

출처 : Lippard, E. T. C., & Nemeroff, C. B. (2020). The Devastating Clinical Consequenc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Increased Disease Vulnerability and Poor Treatment Response in Mood Disorder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77(1), 20-36.

링크 : <https://doi.org/10.1176/appi.ajp.2019.19010020>

아동학대는 신체적·정서적·심리적·성적 학대, 방임 및 유기를 포함한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23%의 아동이 신체적 학대, 36%가 정서적 학대, 16%가 방임, 26%가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많은 아동이 학대에 노출되어 있으며, 아동학대는 발달과정에서 많은 영향을 미친다. Lippard 등(2020)은 아동학대와 정신질환과의 관련성 및 치료 반응에 대한 문헌고찰을 수행하였다. 저자들은 학대 경험이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hypothalamic pituitary-adrenal axis)³⁾의 변형과 염증성 시토카인(inflammatory cytokines) 수준과 관련이 있으며, 학대경험자는 이로 인해 정신질환에 더 취약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저자들은 학대경험자가 정신질환에 취약해지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전적 그리고 환경적 요인들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이러한 문헌고찰을 통해 학대를 당한 아동들에게 적절한 개입을 제공하여 정신질환을 예방, 치료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3) 인체 스트레스 대응체계

아동학대 경험이 선호하는 대인간격과 사회적 접촉 처리 과정에 미치는 영향

출처 : Maier, A., Gieling, C., Heinen-Ludwig, L., Stefan, V., Schultz, J., Güntürkün, O., . . . Scheele, D. (2019). Association of Childhood Maltreatment With Interpersonal Distance and Social Touch Preferences in Adulthood.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77(1), 37-46.

링크 : <https://doi.org/10.1176/appi.ajp.2019.19020212>

아동학대는 아동의 발달과정에 악영향을 미치며 정신질환 발생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대인관계 형성과 관련된 요소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생하는 경로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Maier 등(2020)은 아동학대가 아동이 선호하는 대인간격(interpersonal distance)과 사회적 접촉(social touch)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 변화를 가져오고 이러한 변화가 관련 정신질환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에는 아동학대(저, 중, 강 수준의 아동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아동 총 94명이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은 대인 간격 패러다임과 사회적 접촉(느린 접촉과 빠른 접촉) fMRI 과제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높은 수준의 아동학대를 경험한 참여자들이 낮거나 중간 수준의 아동학대를 경험한 참여자들에 비해 대인간격이 더 넓은 것을 선호하였으며, 빠른 접촉을 더 불편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수준의 아동학대를 경험한 참여자들의 뇌와도 관련이 있었는데, 우측 체성 감각 피질 (right somatosensory) 및 뒤쪽 섬 피질(posterior insular cortex)에 과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대를 받은 아동이 이후 대인관계와 관련된 정신질환에 취약한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의 정신질환 유병률과 약물처방 패턴의 추세

출처 : Leung, B. M., Kellett, P., Youngson, E., Hathaway, J., & Santana, M. (2019). Trends in psychiatric disorders prevalence and prescription patterns of children in Alberta, Canada.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54(12), 1565-1574.

링크 : <https://doi.org/10.1007/s00127-019-01714-w>

아동기 정신건강은 성인까지 영향을 미치며,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 그러나 아동의 정신질환 유병률이나 약물 처방에 대한 정보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Leung 등(2019)은 아동의 정신질환 유병률 및 발생률 추세와 약물처방 패턴을 조사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캐나다 앨버타주의 인구기반 행정자료(보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아동의 정신질환 유병률은 2008년 12.6%에서 2015년 15.0%로 증가하였고, 발생률은 동기간에 2.0%에서 2.2%로 증가하였다. 정신과 약물처방률 또한 2008년 21.4%에서 2015년 28.2%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세부적으로는 동 기간에 항우울제가 7.0%에서 11.2%,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치료제가 11.9%에서 15.9%로 증가하였다. 약물 및 의사 유형에 따라 처방비율도 다양한데, 항우울제의 경우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s, GP)에 의한 처방비율(44.3%~48.1%, 2011~2015년)이 가장 높았으며, 의외로 소아정신과전문의에 의한 처방비율(8.7%~11.0% 2011~2015년)이 가장 낮았다. ADHD 치료제의 경우는 소아정신과전문의가 가장 높은 처방비율(36.9%~39.3% 2011~2015년)을 보였으며, 정신과전문의 처방비율이 가장 낮았다. 결론적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아동의 정신질환 유병률과 정신과 약물처방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신질환의 유병 및 약물처방의 규모 파악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 정책수립에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추후에는 약물부작용, 치료, 재발, 건강 등 아동정신질환자의 좀 더 면밀한 정보 확보가 필요하겠다.



자살



벤조디아제핀, 항우울제, 아편 진통제와 졸피뎀의 병용과 자살위험

출처 : Sung, H. G., Li, J., Nam, J. H., Won, D. Y., Choi, B., & Shin, J.-Y. (2019). Concurrent use of benzodiazepines, antidepressants, and opioid analgesics with zolpidem and risk for suicide: a case-control and case-crossover study.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54(12), 1535-1544.

링크 :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07%2Fs00127-019-01713-x>

환자들이 복용하는 약물의 부작용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Sung 등(2019) 졸피뎀(zolpidem)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가 벤조디아제핀(benzodiazepines), 항우울제(antidepressants), 혹은 아편 진통제(opioid analgesics)를 같이 복용했을 때 자살 위험을 살펴보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코호트 자료를 사용하여, 환자-대조군(case-control) 연구 및 환자 내 환자-교차(case-crossover) 연구를 수행하였다. 환자군은 20세 이상이며, 2004년 1월1일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 자살 기록(ICD 코드: X60-X84 및 Y87.0)이 있는 사람들을 포함시켰다. 모든 분석은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환자-대조군 분석에서는 졸피뎀만 복용하는 환자에 비해 벤조디아제핀, 항우울제 혹은 아편 진통제를 같이 복용하는 군에서 자살 위험이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자 내 분석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앞으로 이러한 연구를 통해 여러 약물을 함께 복용하는 환자에 대한 관찰이 이루어져 자살 위험을 낮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

종단 연구들의 메타분석을 통해 본 세계의 자살 위험

출처 : Guzmán, E. M., Cha, C. B., Ribeiro, J. D., & Franklin, J. C. (2019). Suicide risk around the world: a meta-analysis of longitudinal studie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54(12), 1459-1470.

링크 :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07%2Fs00127-019-01759-x>

자살생각과 행동(이하 STBs)은 전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다. 세계 STBs의 위험요인을 규명하는 것은 자살과 관련된 효과적인 개입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국제간 STBs의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Guzmán 등(2019)은 세계 각 지역에 걸쳐 정신병리가 STBs 예측인자로 작용하는지 여부와 국가수준의 요인들이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다양한 종단연구들(30개국에서 이루어진 총 71건)의 메타 분석을 통하여 정신병리가 STBs와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았으며, 메타회귀분석을 통하여 국가수준의 요인들(지리적 위치, 소득 수준, 정신건강관련 구조적 낙인(structural stigma)⁴⁾에 따른 그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종단 연구가 수행된 연구들의 지역(90% 이상이 북미와 유럽에서 수행 됨), 소득 수준(고소득 국가가 아닌 곳에서 오직 하나의 연구가 수행 됨), 구조적 낙인 수준의 정도(높은 구조적 낙인⁵⁾으로 분류되는 곳에서는 10% 미만의 관련 연구가 수행 됨)가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정신병리가 STBs 위험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국가수준의 요인들로는 각 연구들의 효과크기 차이를 설명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STBs의 위험에 관한 종단 연구의 범위가 편중화 되어있는 현 상황에서 벗어나, 보다 광범위해져야 함을 시사한다. 이는 자살 위험, 적절한 개입, 효과적인 예방법 등과 같은 자살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4) 제도적·구조적 장치의 부재로 인하여 정신질환자들의 권리가 박탈당하는 것을 의미(출처: Corrigan, P. W., Markowitz, F. E., & Watson, A. C. (2004). Structural levels of mental illness stigma and discrimination. *Schizophrenia bulletin*, 30(3), 481-491.)

5) 분류기준: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Mental health atlas



정책 및 제도



퇴원 후 재입원을 줄이기 위한 퇴원 전환개입의 효과성

출처 : Hegedüs, A., Kozel, B., Richter, D., & Behrens, J. (2020). Effectiveness of Transitional Interventions in Improving Patient Outcomes and Service Use After Discharge from Psychiatric Inpatient Care: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Frontiers in Psychiatry*, 10, 969.

링크 : <https://doi.org/10.3389/fpsyt.2019.00969>

정신과 환자는 입원치료 이상으로 퇴원 후의 관리가 중요하다. 실제로 정신과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는 지역사회에서의 적응과 지속적인 치료에 종종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지속적인 치료 제공과 재입원 예방을 위해 퇴원전환개입(Transitional Intervention)⁶⁾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입이 실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 고찰은 거의 되어있지 않다. Hegedüs 등(2020)은 퇴원전환개입이 재입원을 줄여주고, 퇴원 후 환자의 건강 혹은 사회적인 부분을 향상시키는지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관련 연구들을 고찰하고 메타분석을 수행하였다. 전자데이터베이스인 MEDLINE, Embase, Cochrane Library, CINAHL, PsycINFO 및 Psynex에서 관련 연구들을 검색하여, 총 2,673건의 연구들을 선별한 후 최종 9건의 무작위임상시험(Randomized Clinical Trial) 연구들을 메타분석에 포함하였다. 연구결과, 퇴원전환개입이 일반적인 치료에 비하여 재입원을 낮추는데 더 효과적이지는 않았다(OR=0.76, 95%CI=0.55-1.05). Hegedüs 등 (2020)은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현재 퇴원전환개입의 효과성 연구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즉 관련근거의 부족이

본 연구의 한계이다. 비록 본 개입이 일반치료보다 재입원을 낮추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서비스 이용자들의 선호도는 높다고 덧붙였다. 퇴원환자 관리를 통해 재입원을 낮추는 것은 국가정신건강정책의 주요한 이슈이다. 앞으로 충분한 근거 확보를 위해 퇴원전환개입의 효과성에 대한 양질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겠다.

6) 퇴원 전에 제공되며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개입



아시아계 미국인의 정신건강치료 이용과 필요성 인지 간의 간극

출처 : Yang, K. G., Rodgers, C. R., Lee, E., & Lê Cook, B. (2020). Disparities in Mental Health Care Utilization and Perceived Need Among Asian Americans: 2012–2016. *Psychiatric Services, 71*(1), 21-27.

링크 : <https://doi.org/10.1176/appi.ps.201900126>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예방만큼 중요한 것은 치료율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크기에 비해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상당히 낮은 편이고, 아시아인이 특히 그러하다. Yang 등(2020)은 아시아계 미국인과 백인간의 정신건강 치료 접근성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와, 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가 치료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12~2015년 국가단위의 대표성 있는 ‘약물사용과 건강조사(National Survey on Drug Use and Health)’ 자료를 이용하였다. 다변량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정한 후, 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하위그룹(“치료의 필요성을 인지한 그룹”, “지난 1년간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한 그룹”, “지난 1년간 주요우울 에피소드가 있는 그룹”)별로 나누어 아시아계 미국인과 백인간에 치료 접근성의 차이를 검정하였다. 연구결과, 모든 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하위그룹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은 백인보다 정신과 치료를 덜 받았다. 또한, 인종의 특성과 상관없이 치료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그룹이 실제 임상적 필요성이 있는 그룹보다 치료율이 더 높았다. 즉, 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는 치료율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가 아시아계 미국인과 백인간의 치료율의 차이를 설명하지는 못했다. 아마도 아시아계 미국인들에게만 갖고 있는 다른 치료장벽의 요인이 있을 것이다. 추후에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정신건강 치료의 접근성을 낮추는 원인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겠다.

중국 중증정신질환자의 자의 및 비자의 입원현황

출처 : Yang, Y., Li, W., An, F. R., Wang, Y. Y., Ungvari, G. S., Balbuena, L., & Xiang, Y. T. (2020). Voluntary and involuntary admissions for severe mental illness in China: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Psychiatric Services, 71*(1), 83-86.

링크 : <https://doi.org/10.1176/appi.ps.201900106>

세계적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 의식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비자의 입원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비자의 입원율을 보이고 있다. Yang 등(2020)은 체계적고찰과 메타분석을 통해 중국의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자의 및 비자의 입원율의 규모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전자 데이터베이스인 PubMed, Cochrane Library, PsycINFO, EMBASE, CNKI, CQVIP, WanFang에서 관련 논문을 검색하여, 최종 14개의 선별된 논문(총 94,305명의 중증정신질환자)들을 메타분석의 변량효과모형(Random-effect model)에 포함시켰다. 연구결과, 중증정신질환의 자의 입원율은 30.3%(95%CI = 18.06% - 46.23%), 비자의 입원율은 32.3%(95% CI = 10.39% - 66.21%)였다. 세부적으로, 조현병의 자의 입원율은 19.6%(95% CI = 14.09% - 26.54%), 비자의 입원율은 44.3%(95% CI = 5.98% - 90.88%)였다. 또한, 1998년에서 2018년까지 중국에서의 중증정신질환자 자의 입원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조현병의 경우 여전히 비자의 입원율이 높았다. Yang 등(2020)은 앞으로 비자의 입원율을 낮추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기타





청소년기의 경계성 성격장애와 이성교제

출처 : Lazarus, S. A., Choukas-Bradley, S., Beeney, J. E., Byrd, A. L., Vine, V., & Stepp, S. D. (2019). Too Much Too Soo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Symptoms and Romantic Relationships in Adolescent Girl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7(12), 1995-2005.

링크 : <https://doi.org/10.1007/s10802-019-00570-1>

경계성 성격장애(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BPD)가 갖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대인관계의 어려움이다. 이성교제 시 상대방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나 폭력 등의 문제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대부분 성인들의 경우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 청소년기에 이러한 문제의 조기 발달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Lazarus 등(2019)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계성 성격장애와 이성교제의 동반 발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자료는 피츠버그 소녀 연구(The Pittsburg Girls Study) 자료를 이용하여, 대도시에 사는 15~19세 소녀 총 2,310명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연구는 첫째, 청소년기에 경계성 성격장애가 이성교제에 대한 몰입도(예: 이성교제 회수, 이성교제의 중요성) 및 관계불안(예: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부정행위도 할 수 있는 것 등)과 관련이 있는지 검증하였다. 둘째, 경계성 성격장애와 이성교제관련 세부 특성들(상대방의 지지⁷⁾ 및 적의⁸⁾, 언어 및 신체공격)의 시간적 전후 관계를 잠재성장곡선모델(Latent Growth Curve Models, LGCMs)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경계성

성격장애는 높은 이성교제의 몰입도 및 관계불안도와 관련이 있었다. 또한, 경계성 성격장애 증상이 높은 15세는 청소년기 동안(15~19세)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과 공격성이 증가하였다. 반대로, 15세 때 상대방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교제경험은 이후 경계성 성격장애 증상을 급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Lazarus 등(2019)은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청소년기에 친밀한 이성교제에 너무 몰두하는 것은 이후 경계성 성격장애 증상에 잠재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경계성 성격장애 예방을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청소년기부터 건강한 교제를 위한 심리교육 및 상담 등의 개입이 필요하겠다.

7) 상대방에 대한 친밀감, 상대방의 애정수준, 관계유지에 대한 신뢰감 등
8) 서로간 귀찮게 하거나 괴롭히기

심리적 스트레스와 비만, 이민과의 관련성

출처 : Baratin, C., Beune, E., van Schalkwijk, D., Meeks, K., Smeeth, L., Addo, J., ... & Danquah, I. (2020). Differential associations between psychosocial stress and obesity among Ghanaians in Europe and in Ghana: findings from the RODAM study.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55(1), 45-56.

링크 : <https://doi.org/10.1007/s00127-019-01682-1>

국제간 인구 이동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지금, 이민자들의 낯선 환경에서의 적응은 그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취약하게 할 수 있다. 심리적 스트레스와 비만과의 관련성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으나, 그 관련성이 이민과도 관련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에 Baratin 등(2020)은 심리적 스트레스와 비만과의 관련성이 이민 여부와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자, 유럽으로 이주한 가나인과 가나에서 살고 있는 가나인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RODAM(Research on Obesity and Diabetes among African Migrants)⁹⁾ 데이터를 이용하여, 총 5,898명의 유럽(네덜란드, 독일, 영국)과 가나에 거주하는 가나인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회귀분석을 통해 이민 여부에 따라 차별에 대한 인지, 인생에서의 부정적인 사건 경험 및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비만관련 변수인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 및 허리둘레(WC, Waist Circumference)와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이민 여부와 상관없이 차별에 대한 인지는 비만과 관련이 없었다. 그러나 이주 남성들에서만 인생에서의 부정적인 사건과 가정이나

9) 유럽(네덜란드, 독일, 영국)으로 이주한 가나인과 가나에 살고 있는 가나인의 비만과 당뇨에 관한 단면조사 연구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체질량지수와 허리둘레가 증가하였다. 반대로, 이주하지 않은 가나인 남녀 모두는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체질량지수와 허리둘레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즉, 이민자이든 아니든 심리적 스트레스와 비만과는 유의한 관련이 있지만, 그 관련성의 방향은 반대였다. 결론적으로, 이주한 남성들이 겪는 심리적 스트레스는 비만의 위험을 높여주고 있다. 추후에는 이주민의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주, 스트레스, 비만과의 관련성의 근본적 원인을 찾는 전향적 연구가 필요하겠다.



CURRENT RESEARCH IN MENTAL HEALTH

NCMH's Research [연구 성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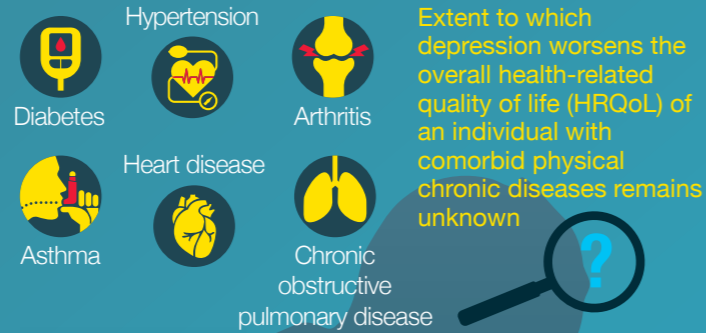
Does comorbid depression influence patients' overall quality of life?

Effect of comorbid depression on HRQoL of patients with chronic diseases

Depression in South Korea

Lifetime prevalence of 5% 12-month prevalence of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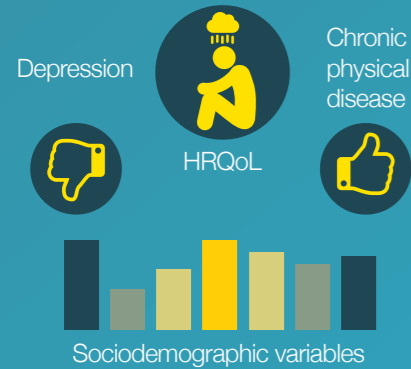
Patients with chronic physical diseases like



Methodology

Cohort:
50,844
respondents from Korean National Health &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Study

Parameters assessed via survey:



Results

HRQoL score decreased...

...when depression was concomitant

HRQoL score of respondents with

≥ 3 chronic diseases + concomitant depression

was lower than those with

≥ 3 chronic diseases - concomitant depression

respondents with

≥ 3 chronic diseases comorbid + depression

showed the largest negative association with HRQoL among all disease status grou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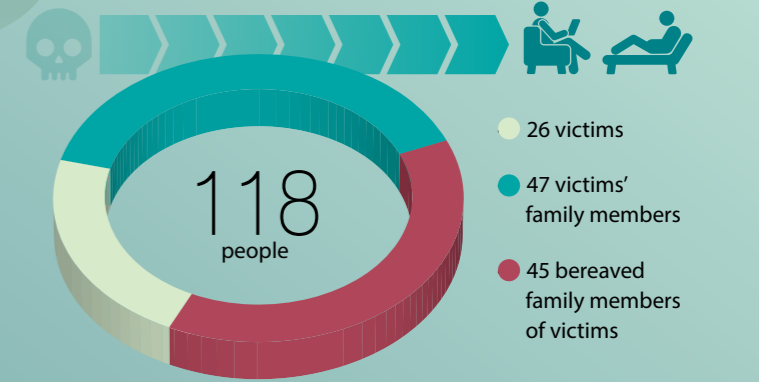
Concomitant depression incrementally worsens HRQoL score when comorbid with other physical diseases

Humidifier disinfectant disasters are psychologically traumatizing

Presenting a better picture of psychological distress post-disaster

Toxic chemical disinfectants linked to lung injury and death have been used in humidifiers in South Korea since 1994

Methodology



75.6% Children used humidifiers
31.1% children exposed to humidifier disinfecta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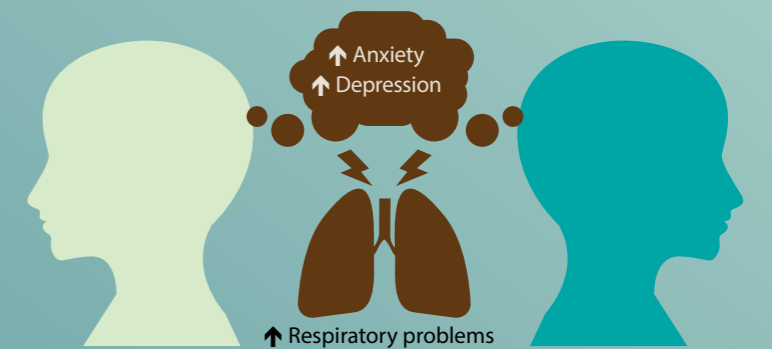
Source: Yoon et al. (2017). Ratios extracted from a survey group of 1,577 children in 2015.

474 people had humidifier disinfectant-associated lung injury (HDL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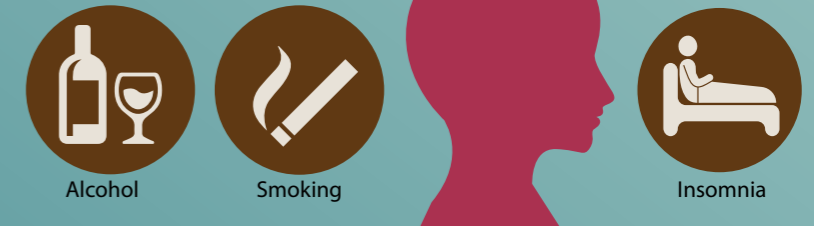
205 deaths 269 survivors

Source: Korean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2019 (<https://www.healthrelief.or.kr>)

Results Victims and their family members



Bereaved family members



Psychological aftereffects of HD disasters continue despite the time elapsed

Coping with stress: Firefighters vs general public

Comparison of posttraumatic stress management between two groups

Methodology

Firefighters: 121 

General population: 500 



Parameters assessed:

- Ways of Coping Checklist
- Beck Depression Inventory
-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 Measures of potentially traumatic events (PTEs)
- Impact of event severity on PTSS also assessed

Firefighters experience stressful events in line of duty...



...that can lead to development of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PTSS)



How they cope with these PTSS is unclear

Study compared coping between



and



firefighters

general population

Results

Firefighters showed better use of:



Problem-focused coping



Wishful thinking



Seeking social support

These active coping skills reduced with severity of PTSS in fire figh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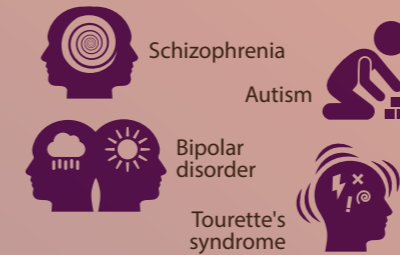
Active coping may play a role in alleviating firefighters PTSS

Does aripiprazole affect cognitive function in rats?

Long-term efficacy of aripiprazole on cognitive function

Atypical antipsychotics (AAPs)

like aripiprazole with relatively minor side effects are increasingly prescribed to adolescent patients with mental illness like...



Long-term effect of aripiprazole on cognitive development of adolescents is unknown




Long-term exposure to aripiprazole during adolescence can influence cognitive function into early adulthood


Methodology

Intraperitoneal administration of **Aripiprazole** **Risperidone** **Control** in adolescent male Sprague-Dawley rats for 3 weeks

Parameters assessed in adultho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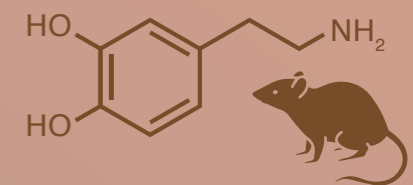
Anxiety 

Locomotion 

Spatial working memory 

Quantification:

Dopamine 2 receptor (D2R) levels



Results

Aripiprazole group

showed higher cognitive performance than t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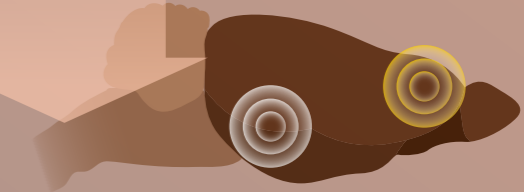
Risperidone group



Aripiprazole-treated rats expressed lower D2R levels

in the **medial prefrontal cortex** and hippocampus compared to

risperidone-treated rats and controls





국립정신건강센터
National Center for Mental Health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127
TEL (02) 2204-0375 FAX (02) 2204-0393
<http://www.ncmh.go.kr/>



9 772671417005
ISSN 2671-4175